

노화는 피가 썩어서 생기는 질병

인생은 태어나서 사는 동안 수많은 아픔을 겪는다. 연애나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병고(病苦)에 시달리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못 이루는 등 여러 아픔을 겪는다. 그중 가장 큰 아픔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것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죽음, 깨물어도 안 아픈 자식의 죽음, 평생을 같이 살았던 연인의 죽음. 같이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참말로 죽음 앞에서 인생처럼 허망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왜 사람은 죽는가?”라고 묻는다.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 걸까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의문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에 귀의하고 도를 닦기도 한다.

기존 종교 과학으로 불사영생 어려워

사람들은 항상 오래 살기를 염원하며 죽음에 항거했지만 죽음을 벗어난 사람이 인류 역사 이래 아무도 없다. 성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리고, 도가(道家)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신선(神仙)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들이 만일 살아있다면 이 세상에 어딘가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아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석가 또한 생로병사의 네 가지 고통을 벗어나고자 출가하여 깨달았다고 하지만 결국 죽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



150세까지 수명연장이 곧 가능하다고 말하는 세계적 유전학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의 세계로 들어갔다. 석가는 신의 경지에 못 올라갔으므로 그가 죽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영생을 운운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았다. 영생은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웠다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한다고 믿을까 미친놈으로 봤다.

하지만 요즘은 영생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조금 무식한 사람에 속한다. 여러 첨단 과학자 및 미래학자들이 영생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브리 드 그레이 박사는 지금 이 세상에 1000살 살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노화는 하나의 질병에 불과하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레이 커즈와일을 위시한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2045년이 되면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지능의 발전 속도를 넘어서는 특이

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버드대학 유전학교수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자신의 책 『노화의 종말』에서 노화는 치유 가능한 질병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과학 및 의학 기술이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켜줄 것이라면, 유전자 치료에 필요한 서투인을 활성화하는 장수 약물 NAD, 라스베라스톨, 메트포르민을 먹고, 세포 재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세포를 만들고, 생체표지 추적을 통하여 부족한 영양소 및 질병 징조를 파악하여 선제 조치를 취하고, 고장난 장기를 맞춤 장기 생산으로 대체하는 등의 장수법을 적용하면 금세기에 150세까지 인류의 수명이 연장될 것이라고 확신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명 연장은 축복만은 아니다.

오랜 병고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의 삶, 즉 건강이 담보되지 않는 수명 연장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이다. 물론 활력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면 누구나 환영할 일이겠지만...

‘피의 원리’로 노화 역전

영생교 승리제단에서는 노화의 원인 및 해결책을 피의 원리로 제시한다. 피의 원리란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는 원리이다. 즉 죽을 마음을 먹으면 피가 죽을 피로 변해서 썩은 피가 생성되어 노화세포 및 사망의 세포가 생성되고, 영생할 마음을 먹으면 피가 영생의 피로 변해서 영생의 세포가 조성되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피, 즉 생명의 피와 사망의 피가 있는데 생명의 피가 사망의 피보다 많으면 건강과 활력이 있게 되고, 그 반대이면 노화와 죽음이 있다는 것이다.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는 ‘피의 원리’는 현대과학을 초월하는 영생학의 기본개념이므로 현대과학으로는 입증이 불가하나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화되는 여러 가지 정황을 제시함으로 쉽게 납득 가능한 이론이다. 육식을 부리고 밥을 먹으면 체하는 경우 사관을 따면 시커먼 썩은 피가 나온다는 것, 놀란 사람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하는 반면 기쁜 일이 있으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환해지는 것, 심신상관적(心身相關的) 여러 사실들을 볼 때 ‘피의 원리’가 실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드러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화와 죽음은 피의 썩음에서 비롯되므로 피를 정결하게 만드는 생활을 해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으며, 그렇게 하려면 영생학을 우선적으로 배워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각할 줄 알지 하나님의 사정은 전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덕분임을 알지 못하니 인류의 어버이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구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아쉬울 때에나 하나님을 부르나 대자대비한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을 찾으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도다. 구세주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신다. 피부색과 나이 성별 등 어떤 것도 분별이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고 가르치신다.

승리자의 말씀에 순종하라!

따라서 먼저 구세주를 만나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여야 하고, 불신자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또는 “어머니 하나님”을 찾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조상으로 모시고 진실된 자식노릇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식이란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거늘 인류를 구원하려는 참부모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어찌 효도할 수 있겠는가!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인류 구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승리절의 의미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할 줄 안다면 그는 조희성님을 구세주로 인정한 존재일 것이다. 구세주란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존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세주로 재창조하는 존재이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마귀의 세력을 자기 대신 승리하신 구세주에 대한 고마움과 공로를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구세주는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신 분이시다. 승리절을 경축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하나님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94>
“나라는 마귀 영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짓이겨라”

여러분들이 죄의 사슬인 마귀옥에서 풀려 나오려면 이긴자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긴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마귀가 잠잘 때 자물쇠가 조금씩 갈려서 나중에는 마귀의 죄의 철창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리석 공장에 가보면 물로 대리석을 자르는데, 바늘 줄기 같은 날카로운 물줄기를 계속해서 분사시켜 나가니 그 돌이 마침내는 잘라졌던 것이다. 물이 돌

보다 비교도 안 되게 약한 물체이지만 계속해서 분사하니 결국 뚫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귀가 제아무리 강하다해도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주체의 마귀영을 미워하고 짓이기고 나가면 결국 마귀는 죽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마귀 죽이는 비결을 세밀히 알려주는데도 이것을 행치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는 것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육부六腑의 작용과 기능의 이해-방광

옛말에 방광이 아프면 허리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신장과 방광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신의 기운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몸의 기운이 허하여 소변이 모이는 방광 또한 약하다는 의미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배설기관은 혈중의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고 남아도는 물질이나 체내 노폐물을 혈액으로부터 걸러 내주는 2개의 신장, 신장에서 방광으로 이어지는 2개의 수뇨관, 방광, 요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콩팥이라고도 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배설 기관입니다.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고 복강 내 횡격막 아래 좌우 하나씩 등쪽으로 붙어 있는데,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고 체내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수뇨관은 소변을 신장에서 방광으로 운반하는 가느다란 근육 관입니다. 복강과 골반강의 내피인 복막의 뒤에 있습니다. 방광은 골반의 앞부분, 치골결합의 바로 뒤에 있는 근육성 기관으로, 소변을 저장합니다. 요도는 소변을 방광으로부터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인데, 남성의 요도가 여성에 비해 5~6배 길니다.

신장의 배설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의 성분이 혈액에 축적되어 요독증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신장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호르몬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현대인이 고통을 호소하는 과민성 방광은 염증이나 다른 원인질환 없이 빈뇨, 절박뇨, 야간뇨, 절박성요실금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이 서양의학적으로는 없는 것이 현

실입니다. 이런 경우 서양의학에서는 참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서양의학적인 치료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과민성 방광의 치료

반면, 이러한 경우 한의학적인 치료가 장점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의학은 결과에 대한 치료라기보다는 몸의 이상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위주로 보고 근원적 접근방식으로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서양의학에서 원인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 몸이 힘들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몸이 힘들어서, 허해져서, 피로해서 증상이 나타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인이 없고 치료방법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소변이 하는 일은 체내 노폐물의 배설과 열의 배설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것에도 체질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열이 있는 사람, 예민한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열이 있는 사람은 몸이 안 좋아지면 열이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열을 배설하기 위해 소변을 보게 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스트레스로 인해 열이 발생하게 되고, 소변을 통해 열을 배설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치료의 핵심은 바로, 열을 없애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열을 없애주면 소변을 자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주호 기자

본부제단 9월 성적 1등 3지역 개인 1등 박태선 승사



3지역 김갑용 지역장이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윤봉수회장)은 6일 구역장 회의를 개최하고 9월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상을 하였다.

1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2등: 2지역(지역장: 서보목,
지회장: 김혜선)
3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구역

1등: 21 구역(구역장: 안명숙)
2등: 42 구역(구역장: 고선희)
3등: 15 구역(구역장: 김혜선)

*개인

1등: 박태선 승사
2등: 서보목 승사
3등: 고선희 권사*